

04 2028 대 입 · 고 교 학 점 제

통합사회·통합과학

탐구를 고르던 시대가 끝납니다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무엇이 다른가	3
03 누구에게 유리한가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17과목 택2에서 **통합사회·통합과학**으로 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
- ◆ **깊이에서 넓이로** — 개별 탐구 과목과 통합과목을 나란히 놓은 표
- ◆ 사탐만 보던 학생, 과탐만 보던 학생 — **누가 무엇을 새로 해야 하는가**
- ◆ **1학년 공통과목이 그대로 수능 범위**입니다 — 2년의 간격을 메우는 법

01 · 먼저 사실부터

열일곱에서 둘로

「탐구를 뭘 골라야 하나요?」

지금까지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. 과목마다 응시자가 달라 **표준점수가 크게 벌어졌고**, 그래서 **실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점수가 갈렸습니다**. 2028학년도부터는 **고를 것이 없습니다**.

	지금까지	2028부터
과목 수	사탐 9 · 과탐 8 — 17과목	2과목
고르는 법	그중 2과목 택	고를 것이 없습니다
무엇을	생활과윤리 · 물리학 I 같은 개별 과목	통합사회 · 통합과학
사탐·과탐 구분	고를 때 갈립니다	둘 다 봅니다

맨 아랫줄이 큰 변화입니다. 지금은 사탐만 보거나 과탐만 보는 학생이 있는데, **앞으로는 모두가 사회와 과학을 다 봅니다**.

참고로 현행 제도에서는 **최저 문장이 과탐을 지목한 자리가 525줄**이었습니다. 그런 **지목이 무의미해집니다** — 모두가 같은 것을 보니까요.

출처: 교육부 확정안 및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. **지목 집계는 현행 제도의 것이며** 개편 뒤에는 달라집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깊이에서 넓이로

통합사회·통합과학은 **고1 공통과목**입니다.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.

	개별 탐구 과목	통합사회·통합과학
범위	한 분야를 깊게	여러 분야를 넓게
언제 배우나	2·3학년 선택	1학년 공통
준비	그 과목만	사회와 과학 전반
유리한 학생	한 분야를 잘하는	고르게 아는

둘째 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. 통합사회·통합과학은 **1학년에 배우는 과목**입니다. 수능은 **3학년에 봅니다.** 2년의 간격이 생깁니다.

그래서 **1학년 때 대충 하고 넘어가면 3학년에 다시 해야 합니다.** 반대로 **1학년에 제대로 해 두면 그만큼 뒤가 편합니다.**

「통합」이라는 이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

여러 과목을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는 과목입니다.

그래서 「물리·화학·생명·지구를 다 외우는 것」이 아닙니다. 현상을 놓고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.

다만 **문항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.** 기출이 없습니다.

출처: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부 확정안. 출제 방식과 난이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
03 · 누구에게 유리한가

단정할 수 없지만

단정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이런 학생은	어떻게 될 가능성
고르게 잘하는	유리해질 가능성이 큼니다
한 과목만 아주 잘하는	그 강점을 보이기 어려워집니다
사탐만 보던	과학을 새로 해야 합니다
과탐만 보던	사회를 새로 해야 합니다

셋째·넷째 줄이 실제 부담입니다. 지금까지 한쪽만 보던 학생이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.

다만 범위가 1학년 공통과목 수준이라 깊이는 예전 개별 과목보다 얇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과목 수가 늘었다고 부담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표준점수 계산이 없어집니다

지금은 「어느 과목이 표준점수가 잘 나올까」를 계산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계산이 자주 빗나갔습니다 — 누가 몰릴지는 시험 전에 모르니까요.

모두가 같은 과목을 보면 그 계산이 사라집니다. 운에 기대는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입니다. 이건 분명한 이점입니다.

출처: 교육부 확정안.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지금 할 일과 점검표

차례	무엇을	언제
1	1학년 통합사회·통합과학을 제대로	고1
2	탐구 과목 고민을 접습니다	—
3	2·3학년 선택은 진로로 고릅니다	고1 겨울
4	3학년에 1학년 내용을 복습합니다	고3

1번과 4번이 짝입니다. 1학년에 배운 것을 3학년에 시험 봅니다. **2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**가 이 시리즈에서 실질적인 준비입니다.

지금으로서는 **1학년에 제대로 해 두는 것이** 가장 확실합니다. **한 번 제대로 한 것은 복습이 빠릅니다.**

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우리 아이가 **새 제도 적용** 인가
- ☐ 탐구가 **통합사회·통합과학** 인 것을 아는가
- ☐ **사회와 과학을 다 본다** 는 것을 아는가
- ☐ 이 과목이 **1학년 공통** 인 것을 아는가
- ☐ 1학년 때 **제대로 하고** 있는가
- ☐ 2·3학년 선택을 **진로로** 고르고 있는가
- ☐ **기출이 없다** 는 것을 알고 있는가
- ☐ 「대비 교재」의 **근거를 물어** 보았는가

여덟째를 특히 보십시오. **기출이 없는 시험의 「대비 교재」**는 짐작으로 만든 것입니다. 학교 교과서와 수업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「**통합사회·통합과학 대비반**」을 서둘러 등록하지 마십시오. **기출이 한 문제도 없습니다.** 지금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는 **교육과정을 보고 짐작해 만든 것**입니다. 짐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, **그 짐작에 값을 치를 만한지**를 보시라는 것입니다. **학교 수업과 교과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합니다.**

05 · 자주 묻는 것

통합사회·통합과학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과목이 둘로 줄면 공부량이 주는 건가요?

과목 수는 줄지만 범위는 넓어집니다. 총량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.

지금은 17과목 중 2과목을 깊게 봅니다. 앞으로는 2과목인데 그 안에 사회 여러 분야, 과학 여러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.

깊이는 알아지고 넓이는 넓어지는 방향이라 총 공부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.

다만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— 「무엇을 고를까」에 쓰던 시간과 불안입니다. 그 계산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부담이 줄입니다.

Q. 지금 고1인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·통합과학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게 그대로 수능 범위입니다.

많은 분이 「따로 뭘 해야 하나」를 물으시는데, 지금은 따로 할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. 기출이 없고, 출제 방향도 안 나왔습니다.

확실한 것은 교과서와 학교 수업입니다. 그리고 이 과목은 내신에도 들어갑니다 —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가 겹칩니다.

1학년에 제대로 해 두면 3학년에 복습이 빠릅니다. 지금 가장 값이 큰 준비가 그것입니다. 새 교재를 찾기 전에 학교 것부터 하십시오.

한 줄로 남기면

탐구는 고르는 시험에서 다 보는 시험이 됩니다. 1학년 공통과목이 그대로 수능 범위이니, 학교 수업이 곧 준비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. 출제 방식·난이도·문항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.